

鍼刺戟의 感應形態에 關한 文獻考察

慶熙大學校 漢醫學科 鍼灸學教室

李潤浩 · 崔容泰

I. 序 論

東洋醫學 針療法은 經絡學說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体表上의 一定한 部位에 各種 針具를 使用하여 여러가지 手技方法으로 기계적 刺戟을 줌으로써 疾病을 完化 치료 예방하는 의로기술의 하나이다.

따라서, 針療法의 주체는 針刺로 인한 자극이며 이 針자극의 質과 量, 또는 환자의 針感應 상태는 針療法의 효과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針刺로 因한 치료성자극은 經絡系統을 통하여 傳導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補虛瀉實, 즉 調氣作用을 한다는 것이 東洋醫學 針療法의 이론이라고 본다.

본 필자는 內經을 중심으로 한 「針療法中 手技方法에 關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針 자극이 內經以來로 氣至, 得氣, 行氣, 등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手技의 여러가지 방법들은 모두 氣至를 얻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며, 手技法의 기준과 목표는 氣至에 두어야 하고 針자극의 감응형태는 환자의 체질, 질병의 상태, 치료穴位, 치료시기 및 사용針具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조건에 따른 手技의 각종 방법을 운용 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음을 고찰하고, 아울러 手技法은 통일된 기준을 정할 수가 없고 相對的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法 자체에 구애되거나 고집할 수가 없고, 手技의 기준은 法에 우선하며 氣至에 두어야 함을 강조한 것을 알았다.

실제, 임상경험에 의하면 針자극은 그 感應형태가 여러가지로 표현되며, 또 그 감응의 속도나 強度, 方向, 지속시간 등 여러 특성은 치료효과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同一한 刺戟強度라도 患者의 感應에는 強弱이 있어서 或者는 針感이

클때, 효과가 있고 或者는 感應이 微弱해도 良好한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經絡의 傳導作用이 중요한 內在의 原因이 되며 外部에 加해지는 刺戟조건은 經絡을 통한 內在의 연관으로 作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임상응용에 있어 針刺戟의 量과 質은 生體의 기능상태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며, 수시로 적절한 변경과 조절을 행함으로써 어느 한가지 방법에 對한 生體의 감수성이 저하되어 치료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56)

이와같이 針療法에 있어 氣至의 感應形態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전에 對하여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對하여 本人은 內經以後 古典을 中心으로 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針刺戟의 感應形態에 對한 특성과 치료 효과와의 관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 등을 분석 검토하므로 針療法 연구에 기초적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II. 資料 및 方法

黃帝內經 및 難經 外 10種의 문헌 내에 기재된 針刺戟의 感應形態와 관계있는 內容을 발췌하고, 그 구체적 感應形態, 특성 및 치료효과와의 관계와 針感應에 영향을 주는 要因 등을 분석하고 時代的으로 前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였거나 內容이 같은 것은 가능한 대로 생략하였다.

III. 本 論

各 문헌에 나타난 針刺戟 및 그 感應形態와 關係있는 原文을 인용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4-714

- 1) 刺之要 氣至而有効……刺之而氣不至 無問其數 刺之而氣至乃去之 勿復針〈九針十二原〉
中肉節則 皮膚痛〈邪氣臟腑病形〉
- 2) 經氣已至 慎守勿失者 勿變更也〈九針十二原, 針解〉
- 3) 邪氣來也 緊而疾 穀氣來也 徐而和〈終始〉
- 4) 効之信 若風之吹雲 明于若見蒼天〈九針〉
- 5) 百姓之氣血 各不同形 或神動而 氣先行針行 或氣與針相逢 或針已出氣独行 或數刺乃知 或發針而氣送 或數針病益劇〈行針〉
- 6) 刺寒者 須其虛者 留針 陰氣降至 乃去針也, 刺虛者 須其實者 陽氣降至 針下熱 乃去針也 言虛與實者 寒溫氣多少也〈九針十二原, 寶命全形論, 針解〉
- 7) 瀉必用圓 切而轉之 其氣乃行……
補必用方……微施而 徐推之……氣下而疾出之
〈官能, 甲乙經補〉
- 8) 吸則轉針 以得氣為故……命日瀉〈離合真邪論〉
- 9) 氣出而去之者 言補瀉氣調而去之〈小針解, 針解〉
- 10) 靜而久留 無令邪布……以氣至為故……〈離合真邪〉
- 11) (各經脉 及 病症斗)……熱則疾之 寒則留之……氣下乃止〈經脉 熱病, 經刺論, 邪氣臟腑病形, 寒熱病, 官能斗 各篇〉
- 12) 手之陰陽 其受氣之道近 其氣來疾……其留皆無過一呼(皆無過二分) 其少長大小 肥瘦以心按之〈經水〉
- 13) 骨強筋弱肉緩 皮膚厚者耐痛 其于針石之痛……
堅肉薄皮者 不耐針石之痛 干火炳亦然……〈論痛〉
- 14) 刺之者 必中其穴 無中肉節 中氣穴則 針游於巷
- 15) ……熱因於針則針熱 熱則肉着于針 故堅焉〈血脈絡論〉
- 16) 春夏溫……初下針沈……得氣引持之陰也
秋冬寒……初內針浮……得氣推內之陽也〈七十難〉
- 17) 補瀉之法……彈而努之 爪而下之 其氣之來 如動脈之狀 順針而刺之 得氣因推而內之 是謂補 動而伸之是謂瀉 不得氣乃與男外女內 不得氣是謂十死不治也〈七十八難〉
- 18) 下針之後 指下旋轉 自如其針 甚易活動 則未得氣 若熱覺針下吸緊 旋轉不利則為得氣〈註 張山雷〉
- 19) 氣來實牢者為得 濡虛者為失 故若得若失也〈七十九難〉
- 20) 有見如入者 謂左手見氣來至乃內針 針入見氣盡乃出針〈八十難〉
- 21) 凡用針者 先明氣血多少 次觀針氣之來也〈針灸大成標幽賦〉
- 22) 輕浮 滑虛 慢遲 入針之後 值此三者乃真氣之未到 沈重洪滯緊實 入針之後 值此三者 是正氣之已來〈標幽賦針灸大成〉
- 23) 既至也 量寒熱而留疾〈標幽賦〉
留住也 疾速也 此言正氣至 必審寒熱而施之〈針灸大成〉
- 24) 未至也 據虛實而候氣〈標幽賦〉
氣之未至 或進 或退 或按 或提 導之乃之 候氣至穴而 方行補瀉〈針灸大成〉
- 25) 氣之至也 如魚吞鈎餌之沈浮 氣未至也 如閑虛幽堂之 深遽〈標幽賦 針灸大成〉
- 26) 氣速至而速効 氣遲至而不治〈標幽賦 針灸大成〉

- 27) ……虛則補其母 須待熱至之後……實則瀉其子 務待寒至之後……〈金針賦 針灸大成〉
- 28) 故凡病熱者 先使氣至病所……(次用瀉法) 病寒者 先使氣至病所……(次用補法)……得針熱而止 〈針灸大成〉
- 29) 瀉訣直說……細細動搖 進退搖然 其針如手顫之狀 謂之催氣 約行五六次 覺針下氣緊 却用瀉法……覺針下沈緊 是氣至極矣 補訣直說……依前用手法 催氣……(先用瀉後補法) 覺針下沈緊 成針下氣熱 是氣至足矣 〈神應經 針灸大成〉
- 30) 動而進之 催針之法 循而攝之 行氣之法……氣速効速 氣遲効遲 死生貴賤 針下皆知 賤者硬 貴者脆 生者橋 死者虛 候之不至 必死無疑 〈金針賦大成〉
- 31) 凡補者……待氣沈緊 倒針朝病 進退往來 飛經走氣 盡在其中矣……凡瀉者……得氣瀉之…… 〈金針賦大成〉
- 32) 脉氣盛而虛者 刺之則脫氣 脫氣則仆 〈血脉絡論〉 暈針者 神氣虛也 以針補之 〈金針賦〉
- 33) 調氣之法……欲氣上行 將針右燃 欲氣下行 將針左燃……氣不至者 以手循攝 以爪切隨以針 搖動 進燃搓 彈直待氣至 以龍虎升騰之法 按之在前 使氣在後 按之在後 使氣在前 運氣走至疼痛之所 〈金針賦 針灸大成〉
- 34) 出針之法 病勢既退 針氣微鬆 病未退者 針氣始根 推之不動 轉之不移 此為邪氣 吸拔其針 乃至氣真至 不可出之…… 〈金針賦〉
- 35) 指循者 凡下針 若氣不至 用指於所屬部分 經絡之路 上·下左右循之 使氣血 往來上下 均勻針下者 然氣至沈緊 得氣即瀉之故也 〈三衢楊氏補瀉針灸大成〉
- 36) 爪攝者 凡下針 如針下針氣 滯澀不行者 隨經絡上下 用大指甲切之 其氣自通行也 〈上同〉
- 37) 指撻者 凡轉針 如撻線之狀 勿轉太緊 隨氣而用之 若轉太緊 下入肉纏針 則大痛之患 〈上同〉
- 38) 指撻者……外撻者 令氣向上而治病 內撻者 令氣 至下而治病……轉針頭而病所 令取真氣以至病所 〈上同〉
- 39) 指撻者 凡持針 欲出之時 待針下氣緩 不沈緊 便覺轉滑 用指撻針 如撻虎尾之狀也 〈上同〉
- 40) 각종 補瀉手法
燒山火法, 透天涼法, 陽中隱陰, 陰中隱陽, 留氣法, 運氣法, 提氣法, 中氣法, 蒼龍擺尾法, 赤鳳搖頭法, 龍虎交戰法, 龍虎升降法, 五臟交經, 關節交經, 子午補瀉總歌 〈針灸大成 醫學入門 補針法, 瀉針法〉
- 41) ……氣來為補瀉 氣不至時莫急施……
……既吞得氣 宜用補瀉…… 〈針灸大成 設為問答〉
- 42) 彈而努之 此則先彈針頭 待氣至……
搖而伸之 此則先搖動針頭 待氣至……如出針內撻者 令氣行至病所 外撻者 令邪氣至針下而出也 〈下手八法針灸大成〉
- 43) 補針 導氣之法 所謂捫而循之者 令氣血舒緩 易得往來也……指撻針 按住近氣不失 則遠氣乃來也……指甲彈針 令脉氣填滿而 得疾行至於病所也 〈說為門答 針灸大成〉
- 44) 十四法……動者如氣不行 將針伸提而已……進者 凡不得氣男女內……彈者 輕彈針 使氣疾行也……循者 使氣血往來……攝者 下針時得氣 澀滯其氣血 自得通行也……撻非素問法也 〈聚英針灸大成〉
- 45) 下針麻重即須瀉 得氣之時 不用留 〈針灸大全, 席弘賦……〉
- 46) 左外右內令氣上行 右外左內令氣下行 〈醫學入門〉

47) 如針下沈重緊滿者 為氣已至 若患人覺痛則為實 覺痿則為虛 如針下輕浮虛闊者 氣猶未至 用後彈 努循捫引之 引之氣猶不至 針如插豆腐者死 (醫學入門)

48) 彈而努之……使氣速行則氣易至也 氣自至者 不必用此彈努捫而循之……使氣往來 推之則行 引之則止是也……凡轉針 太急則痛 太慢則不去 疾 如補瀉不覺氣行 將針提……再彈……飛法…… 如覺針下緊滿 其氣易行即用通法 (醫學入門)

49) 審看 針下 十分沈緊則 瀉九補六 如不甚緊則 瀉六補九 補瀉後 針活即 搖而出之 (醫學入門)

50) 針痛者 只是手粗…… (醫學入門)

51) 留針法 留針 取氣候沈浮

拔針歌……如欲出針 須待針下氣緩 不沈不緊 指循歌……針頭不沈緊 推則行之 引則止 攝法歌……攝法原因氣帶經 以指攝針待氣至 邪氣流行針自輕 (醫宗金鑑)

52) 簡易行針手法

進針……快速插入……故受術者 無甚痛覺或全無痛覺

彈刮……促便針沈緊

捻轉……可以發生 伸展전류……針下沈緊痠脹 감각, 자극의 強弱 조절

提插……可以發生 마찰전류……痠脹 감각, 자극의 強弱 조절

搖擺……攙動 針下 신경의 強烈的 자극

留針……輕微한 자극의 累加

出針……促令鬆弛 不徐不疾出 揉按穴

(針灸補瀉法の 이론과 실제)

53) 前手技: 催氣法(循, 捫, 按, 彈努) 開闔, 爪下(無痛), 命咳(無痛)

○本手法: 提插法, 迎隨法, 深淺法, 捻轉法(催氣, 行氣, 導氣) 催氣法(彈, 努, 循, 捫, 留針) 呼吸(易得氣) 徐疾法(得氣, 導氣) 導氣法(刮, 循, 捫, 摩, 留針, 插穴之後, 通氣)

○後手法: 伸搖, 開闔法 (古典針手法の 체계적 연구)

54) 〈針補瀉法の 이론과 실제〉

p. 7, 52, 65 (各種補瀉法)

55) 〈精解針灸學〉

p. 793~805, p. 782

56) 〈針灸學〉

p. 368~370

1. 문헌상 針자극의 표현과 구체적 감응형태

漢方문헌상 針자극은 대부분 氣로서 표현되고 있는데 단순히 氣로 나타내기도 하고 (37, 38, 40) 針氣 (21, 36), 針力 (40) 으로 또 최근에는 針感 (56), 針響 (53) 으로도 나타내고 있으나, 古典에서는 氣至 (1, 6, 10, 20, 23, 24, 25, 33, 35, 40, 41, 42, 47), 得氣 (8, 16, 17, 18, 31, 35, 40, 41, 44, 45), 氣來 (3, 12, 20, 41, 43), 氣行 (5, 6, 40, 42, 48) 등으로 대부분 표현하고 있으며, 그 밖에 氣下 (7, 11), 氣出 (9), 氣滿 (40)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또, 氣는 구체적으로 經氣 (2), 脉氣 (43), 穀氣 (3), 真氣 (6, 22, 38) 와 正氣 (12, 23), 邪氣 (3, 34, 42), 陰氣 (6), 陽氣 (6) 등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針感의 形態에 있어서는 如動脈之狀 (17, 40), 如魚吞鉤餌之沈浮 (25), 風吹雲見蒼天 (4), 針游於巷 (14) 등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緊 (3, 18, 22, 29, 31, 35, 43, 47, 48, 49, 52, 55, 56), 洪 (瀉 22, 40, 44, 56), 沈 (22, 29, 31, 35, 40, 47, 49, 52, 56), 重 (22, 45, 47, 54, 55, 56) 麻 (45, 54, 55, 56), 脹 (52, 54, 55, 56), 滿 (47, 48, 55), 滯 (22, 36), 實牢 (19), 和 (3), 快 (55) 痛 (47, 55) 등으로 나타내며, 病症의 虛實에 따라 涼寒 (6, 23, 27, 40) 溫熱로, 또 體質에 따라 硬, 脆, 滿, 虛 (30) 하다고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針자극의 감응이 전혀 없는 경우는 輕浮 滑虛慢遲 (22) 하여 針이 轉이 不緊하며 (55), 如閉 如幽堂之熱遠 (25) 한 것과 같다고 하고, 또 시술자와 피시술자의 감응형태를 區別하기도 하였다 (56).

2. 針자극 감응의 特性

감응속도: 針자극의 감응이 빠르면 효과도 빠르고 감응이 늦으면 효과도 늦거나 不治라 하고 (26, 30) 또는 體質(5), 病症(3), 經絡(12) 따라 다르고 감응을 얻기 위하여 轉, 彈, 搖, 進退 등 여러가지 催氣手法을 사용한다. (43, 44, 48, 53, 55 등)

強度: 刺針으로 治病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자극 량에 도달해야만 유효한데 이 자극의 強弱은 환자의 감응으로 측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감응의 強度는 환자의 체질 穴位, 病症, 針具, 手技法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29, 37, 48, 49, 52, 53, 54, 55, 56) 따라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극의 기준을 정하고 적당한 手技法을 運用함으로 질병치료에 합당한 針자극의 감응을 얻도록 해야 한다. 또, 古典에는 이 감응의 강도에 따라 질병치로 효과와 出針의 기준을 정하기도 한다. (20, 34, 39, 51)

方向: 針자극의 감응은 일정한 방향으로 流注 전도하거나 확산되기도 하는데, 가급적 經絡의 循行과 結合시켜 病所에 이르도록 해야 효과가 있다(28, 40, 43, 56) 이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行氣法을 쓰는데, 針頭를 病所로 向하게 하거나(31, 40, 38) 左右捻轉(33, 38, 42, 46) 按前後(33, 56) 하여 上下로 보내거나 捫, 循, 捫, 彈 등의 手法으로 運氣시킨다 (48, 33, 51, 53, 54, 56).

지속시간: 針刺戟의 감응은 일정한 시간 누적되어야 좋은 효과를 얻을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로 留針法이 運用되며(51, 52, 56) 留針中 提插, 捻轉 등으로 一定時間 유지토록 하기도 한다 (56).

3. 針刺戟 感応에 영향을 주는 要因

手技法: 刺針前 또는 刺針中の 모든 手技는 針刺戟의 感応形態나 그 감응속도, 강도, 傳導方向 및 지속시간 등에 처하여 一定한 영향을 준다. 轉(旋, 捻, 捻, 搓, 7, 8, 17, 18, 29, 33, 38, 40, 42, 43, 44, 52, 53, 54, 56) 插(進, 推, 按, 7, 24, 29, 30, 31, 33, 40, 44, 52, 53, 56) 提(退, 伸, 24, 39, 31, 40, 52, 56) 彈(努 17, 33, 42, 43, 44, 47, 48, 54, 52, 53, 56) 搖(動飛 29, 30, 33, 42, 44, 48, 52, 54, 56) 循(捫, 捫 30, 33, 35, 43,

44, 47, 48, 51, 53, 56) 爪(切 7, 17, 33, 35) 刮(摩 52, 53) 留(6, 10, 11, 12, 23, 51, 52, 53, 54, 56) 와 刺針深度(12, 16, 40, 54, 56) 方向(28, 31, 38, 40, 56) 手技動作의 次數(40, 54, 56) 呼吸(8, 40, 53, 54) 등

기 타: 手技의 各種方法 以外에 환자의 體質(5, 12, 30, 56) 男女(17, 44) 病症(6, 11, 23, 27, 3, 28, 30, 34, 47, 56) 經絡 穴位(12, 56) 계절(16) 針具(54, 56) 등도 針刺戟의 感応에 영향을 준다.

4. 治療효과와의 관계

內經以來로 氣至해야만 有効(1)하다고 하며, 모든 針療法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得氣하지 못하면 不治이거나 死한다. (17, 26, 30, 47)

또, 虛寒症에서는 熱의 感応을 實熱症의 경우에는 寒의 感応이 큰 효과를 보지만(6, 27, 28, 29, 40) 대부분 虛實에 관계없이 感応은 同一한 형태와 神瀉의 치료효과를 갖는다.

5. 手技法과의 관계

針자극의 感応은 모든 手技法의 기준이 되는데 氣至가 되면 技針하기도 하고(1, 2, 6, 7, 9, 11, 28, 45) 得氣의 상태를 보아 感応이 약화되면 拔針하며(20, 34, 39, 49, 51, 52) 단, 得氣되는 것을 보아 또 다른 여러 補瀉 手技法을 選用하기도 한다(7, 8, 16, 17, 20, 24, 27, 29, 31, 40, 41, 42, 44)

6. 針刺戟의 不良한 感応

古典上の 氣至, 得氣의 針感応은 疾病치료에 적당한 有効性 針刺戟을 말하는데, 이와는 달리 치료에 부적당한 針刺戟의 感応으로 疼痛, 滯針, 暈針 등이 있다. 疼痛은 體質(13) 病症(47) 穴位의 부적당(14) 手技의 부적당(37, 48, 50) 등이 要因이며, 刺入時 疼痛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方法을 취한다(40, 52, 53, 54). 또, 최근에는 針刺로 인해 血管신경, 내장기관 등을 직접 찌르거나 하면 疼痛이 심하므로 피하도록 하고 있다. (55, 56). 滯針과 暈針도 針療法中 不良反應의 하나로 그 예방과 처치에 주의가 필요하다(15, 32, 36, 55, 56).

IV. 考按 및 結論

- 1) 문헌상 針자극은 氣로 표현되고 질병치료에 합당한 針자극의 量과 質에 도달했을 때를 氣至, 氣來, 得氣, 氣行 등으로 나타내며, 그 구체적 感應은 환자에게 緊, 澁, 脹, 麻, 重, 酸, 沈 등으로 나타나고 시술자에게도 沈, 重, 緊, 澁의 감응이 있다.
- 2) 針자극의 感應은 일정한 強度와 傳導方向, 지속시간, 感應속도가 있으며 이들 특성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 치료효과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 3) 針자극의 감응은 체질, 病症, 穴位, 針具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捻轉, 提插, 彈搖, 留針 등의 手技에 의하여 催氣, 行氣, 調氣할 수 있다.
- 4) 針療法の 치료효과는 적당한 針자극의 感應이 있어야만 하며, 得氣하지 못하면 치료 효과도 얻기 어렵다. 이때, 針感應은 빠를수록 좋고, 또 적당한 強度의 感應을 場所에 적당히 유지시키도록 함이 좋다.
- 5) 모든 補瀉 手技法은 法자체에 우선하여 針자극의 감응형태에 기준을 두어야 하며, 여러 要因에 따라 상대적으로 運用되어야 한다. 內經

에는 氣至가 대부분 針療法の 기준이 되고 있으나 次後 점차 복잡해졌음을 알수 있다. 計療法中 疼痛자극이나 滯針 暈針은 不良反應으로 有効性자극인 氣至와는 區別되어야 하며 적당한 예방과 조치가 필요하다.

〈參考文獻〉

- 1) 未詳(張, 馬合註): 黃帝內經 素問靈樞, 漢
- 2) 奏越人: 難經, 漢
- 3) 皇甫謐: 黃帝針灸甲乙經, 晉
- 4) 楊繼洲: 針灸大成, 明
寶漢鄉: 針經指南(標幽賦), 金
陳 会: 神應經, 明
徐 鳳: 針灸大全, 明
高 武: 針灸聚英, 明
孫思邈: 千金要方 翼方, 唐
- 5) 李 梈: 醫學入門, 明
- 6) 張景岳: 類經, 明
- 7) 高宗命選: 醫宗金鑑, 清
- 8) 許 澐: 東醫寶鑑, 1613 光海
- 9) 崔 傑: 針灸補瀉法の 이론과 실제, 中國, 1974.
- 10) 上海中醫學院 編: 針灸學, 香港, 1977
- 11) 최용태, 이수호: 精解針灸學 서울, 杏林書院, 1974.
- 12) 조세형: 古典針灸手技法の 체계적연구, 서울 쫓丑文化社 1979.